

## 강기정 광주시장 “독일 라이프치히와 인적·경제 교류”

우호도시인 독일 라이프치히 부르크하르트 융 시장과 화상회의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두 도시 간 교류 확대 및 협력 강화 약속

강기정 광주시장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독일 라이프치히와의 교류를 재개한다.

강 시장은 25일 오후 우호도시인 독일 라이프치히 부르크하르트 융 시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교류 확대 및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강 시장은 “광주 시민에게 독일은 힌츠페터의 나라로 마음 속 깊이 남아있고 독일 아우토5000에서 영감을 받은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사 상생의 상징이 됐다”며 “특히 민주주의와 예술의 도시 라이프치히와 광주의 인연이 깊은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특히 강 시장은 “팬데믹으로 그동안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지만, 민주주의와 문화예술을 뛰어넘어 인적 교류를 시작하고 싶다”며 “광주시 공직자들이 독일의 강소기업 정책과 행정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부르크하르트 융 라이프치히 시장은 “프랑스 한 도시와도 비슷한 논의를 하고 있고 이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광주-독일 간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자”고 화답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 광주와 동독 민주주의의 발원지 라이프치히가 협력해 민주주의 발전을 이

끌자”며 “라이프치히가 준비 중인 민주주의 네트워크에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독일 라이프치히 빛의축제 교류도 이야기했다.

융 시장은 “2024년 평화혁명 35주년을 기념해 ‘빛의축제’라는 대규모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광주 예술가들이 함께한다면 라이프치히가 더욱 빛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강 시장은 “5·18민주화운동 주제 전시 등 교류를 다시 활성화하자”며 “오는 2024년 축제에 미디어아트 참여 등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자”고 답했다.

/이유빈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5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독일 우호도시인 부르크하르트 융 라이프치히시장과 화상회의를 통해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제네시스 GV70 전동화모델, 獨 유력 車 전문지 비교평가서 테슬라 모델Y 제치고 1위 올라



제네시스 브랜드의 'GV70 전동화모델'이 유럽의 유력 자동차 전문지 비교평가에서 테슬라 모델Y와 포드 머스탱 마하-E GT를 앞서는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제네시스 제공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의 'GV70 전동화모델(이하 GV70)'이 유럽의 유력 자동차 전문지 비교평가에서 테슬라 모델Y와 포드 머

스탱 마하-E GT를 앞서는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 빌트(Auto Bild)'는 최근 실시한 전

기차 모델의 비교 평가에서 GV70가 테슬라 모델Y와 포드 머스탱 마하-E보다 '역동적이면서도 쾌적한 차'라고 평하며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전기차들이 국내외에서 호평 세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파생 전기차 모델 역시 타사의 전기차 전용모델들을 압도하는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V70의 유럽 내 경쟁 모델 비교 평가는 이번이 처음으로,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모두 테슬라 모델Y와 맞붙은 독일 전문지의 비교평가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아우토 빌트는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Auto Motor und Sport), 아

우토 자이퉁(Auto Zeitung)과 함께 신뢰성 높은 독일 3대 자동차 매거진 중 하나로,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다.

이번 비교평가는 ▲바디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성능 ▲커넥티비티 ▲친환경성 ▲경제성 등 7가지 평가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GV70는 평가항목 중 ▲편의성 ▲주행성능 ▲커넥티비티 등 3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종합점수 569점으로 561점을 받은 모델Y와 509점을 받은 머스탱 마하-E를 제치고 최고점을 획득했다.

특히 GV70는 서스펜션 성능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등에서 우위를 점해 '편의성' 항목에서만 경쟁차 대비 2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으며 격차를 벌릴 수 있었다.(\* 편의성 항목 점수: GV70 129점, 모델Y 108점, 머스탱 마하-E 109점)

아우토 빌트는 “제네시스 GV70의 쾌적하고 역동적인 주행성능과 뛰어난 커넥티비티 기능이 인상적이었다”며 호평했다.

GV70 전동화모델은 최대 출력 160kW, 최대 토크 350Nm의 힘을 발휘하는 모터를 전류와 후륜에 각각 적용해 합산 최대 출력 320kW(부스트 모드 시 360kW), 합산 최대 토크 700Nm의 동력성을 갖추고 있으며, 77.4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400km의 최대 주행가능거리(국내 인증 기준)를 자랑한다.

이와 함께 능동형 소음 제어 기

술 ANC-R(Active Noise Control-Road)를 적용해 고객이 느끼는 실내 소음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낮춰 최고의 정숙성을 구현했으며, 모터의 구동력과 제동력을 활용해 각 바퀴에 토크를 최적 분배하는 다이내믹 토크 벡터링(eDTV)을 통해 최적의 승차감을 선사하는 등 강인하면서도 안락한 주행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놓은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하이브리드카,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들은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주요 수상 리스트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전세계 미디어의 비교평가에서도 지속 호평 받는 등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문수 기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맨 파워

나이가 들어도 자신 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 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